

현안리포트 05-036

일-말레이시아 FTA 체결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05.11

통상전략팀

<요 약>

- 일-말레이시아 간 FTA협상이 '06년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
 - 일본은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철강,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에 대해 시장 개방기로 협상 중
 - 말레이시아는 일본에 대해서 자동차, 농산물 등에 대해 시장을 개방기로 협상 중

- 동 FTA를 통해서는 전반적으로 일본보다는 말레이시아의 시장 개방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
 - 우리나라 역시 일본시장에서 보다는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에 불리한 요인이 더 많아질 전망
 - 이는 일본이 기존 무관세 또는 저관세를 운영하고 있어 관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반면,
 - 상대적으로 고관세가 적용되는 말레이시아 시장에 일본제품이 무관세 또는 특혜관세로 진입 가능해지기 때문임.

- 일-말레이시아 FTA가 우리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품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일반기계, 철강, 가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우리제품이 무관세 또는 특혜관세로 들어오는 일본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해질 전망
 - 컴퓨터, 반도체 등 IT 제품은 기존 WTO의 ITA협정에 따라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었던 바, 동 FTA의 영향은 매우 미미

- 일본은 중국 및 아세안(개별국가 포함)과의 FTA를 통해 범아시아 최적생산기지 구축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이들 국가와의 전략적 FTA 추진이 요구됨.

<목 차>

I. 일-말레이시아 FTA 협정 내용	1
II. 주요 품목별 우리 수출 경쟁여건 변화	3
1. 종합	3
2. 일본시장에서의 경쟁여건 변화	5
3.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경쟁여건 변화	9
III. 시사점	13

I. 일-말레이시아 FTA 협정 내용

□ 일본과 말레이시아 FTA 협정은 '05년 10월 현재, 기본골자에 대해서는 양국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세부항목을 놓고 조문 작성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임.

○ '05년 12월말까지 조문을 완성, 양자 서명 후 '06년 1월부터 개최되는 통상국회에서 심의·가결을 거쳐 '06년 6월경 공식 발효가 예상되고 있음.

□ 관세 즉시 철폐 품목

○ 일본

- 철강 : 일본이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광공업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
- 농산품
 - 망고, 망고스틴, 두리안, 파파야, 람부탄, 오크라 등
 - 코코아 조제품(설탕을 포함하지 않는 것, 일부는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 임산품 : 합판을 제외한 임산품
- 수산품 : 새우, 해파리

○ 말레이시아

- 자동차·자동차부품 : 현지 조립차(CKD)용 부품
- 농산품 : 사과, 배, 감

□ 관세 점진 철폐 품목

○ 일본

- 농산품

- 바나나 : 1년에 1000톤을 기준으로 관세 할당. 1000톤 이하는 무관세. 실시 4년 경과후 할당량 재협의를
- 마아가린 : 5년간 29.8%에서 25%까지 관세 삭감. 5년째에 재협의를

- 임산품

- 합판 : 재협의를(말레이시아의 수출세, 수입규제와 병행해 재협의를)

○ 말레이시아

- 자동차 · 자동차부품

- 현지 조립차(CKD)용 부품 이외 자동차 부품 : 2008년까지 0~5% 인하, 2010년까지 철폐
- 2000~3000cc 이하 승용차, 3000cc 초과 다목적 차량, 20톤 초과 트럭 · 버스 :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
- 3000cc 초과 승용차 : 2008년까지 0~5% 인하, 2010년까지 철폐
- 상기 이외 모든 완성차 :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

- 철강

- 말레이시아 역내 직접 제조에 사용되는 對日 수입품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 조치. 모든 철강제품 관세를 10년 이내 철폐

□ 제외 또는 재협의를 대상 품목

- 국가무역품목(쌀, 밀, 보리, 지정 유제품), 소고기, 돼지고기, 전분, 기타 수입할당 적용 수산물 등

Ⅱ. 주요 품목별 우리 수출 경쟁여건 변화

1. 종합

□ 말레이시아가 일본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제한적

- 일본의 수입관세율이 낮은 편에 속해,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 제한
- 전면 관세철폐 대상 품목인 광산물의 경우, 현행 관세가 이미 대부분 0%로 일본시장에서 말레이시아 제품이 누릴 수 있는 메리트가 더 이상 없는 상황
-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코일, 나사, 볼트 등 일부 전자부품도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적용받아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영향은 미미

□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일본시장보다는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일본제품과의 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

-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일본제품이 무관세로 인해 얻는 이익만큼 국산 수출품의 경쟁력이 저하될 전망
- 일-말레이시아 FTA는 일본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아시아 전체의 경제연대(FTA, EPA)를 겨냥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데 의의가 있음.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한-일 FTA 교섭 등 경제적 연대를 앞당기는 파급효과에 기대하고 있음. (日외무성 담당자)

- 투자분야에서도 일본과 비교해 상대적인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투자보호협정 체결 등 대책검토가 필요

- 품목별로는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기계, 철강, 자동차, 자동차부품, 가전 등에서 우리수출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

- 컴퓨터, 반도체 등 IT제품은 WTO의 정보통신협정(ITA)에 의해 우리나라 제품도 일본과 말레이시아 시장 모두에서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 따라서 동 FTA에 의한 역외국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

- 일반기계, 철강, 가전 등은 말레이시아 시장으로 무관세 혹은 특혜관세로 수입되는 일본산이 가격경쟁력에서 유리

- 기계와 철강은 향후 10년간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높음.

- 가전은 일본서 직수입되는 제품의 비중이 높지는 않으나, 일부 고급가전에 적용되던 고관세(25~30%)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일본산이 유리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일본이 기존 관세율 10%를 면제받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쟁여건은 크게 불리

- 특히, 자동차산업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강력한 보호정책을 쓰는 분야로 FTA를 통해 일본이 어느 만큼 정책적 시장개방효과를 유도하는가가 최대 관건

2. 일본시장에서의 경쟁여건 변화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중 금번 일-말레이시아 FTA의 관세인하 및 폐지 영향을 받는 품목은 없음.

○ 일본은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영세율 또는 1~2%의 낮은 관세율을 운영하고 있는 바, FTA에 의한 역내외국의 관세율 차이는 매우 미미함.

○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시장에서 FTA 체결 대상국인 말레이시아에 비해 관세에 의한 차별 및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

□ 주요 품목별 일본시장에서의 경쟁여건

품목별	내용	주요경쟁국
컴퓨터	- 현행 일본의 관세율상 GSP, WTO 협정세율 모두 무관세. FTA 체결에 따른 영향 없음 - 수입PC 증가는 일단락되고 있지만 향후 교체 수요가 두드러질 전망 - 말레이시아산 PC 점유율은 3% 내외로 감소 추세 - 협정발효에 따른 수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움	미국, 대만, 중국
반도체	- 현행 무관세로 직접적인 영향 전무 - 메모리 반도체는 일본내 시장가격 하락 추세 - 3세대 휴대전화, 디지털가전, 오락기기를 겨냥한 제품은 견실한 성장세 유지	미국, 대만
일반기계	- 현행 무관세로 직접적인 영향 전무 - 수입시장은 설비투자의 회복 등에 따라 증가 추세	대만, 중국

철강	- 나사, 볼트에 대해 2.8%~3.3%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말레이시아는 GSP 적용국으로 이미 영세율을 적용받아 왔음. - 금번 FTA에 의한 관세인하 영향 없음.	대만, 중국
자동차	- 현행 무관세로 FTA 영향 없음 -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은 1000cc 이하 13대, 3000cc 이하 승용차 11대에 그치고 있음. ('05.1~8월)	미국, 독일
자동차부품	- 현행 무관세로 FTA 영향 없음 - 말레이시아로부터의 범퍼 등 부품 및 부속품 수입은 일본시장에서 23위로 점유율도 0.5%에 그치고 있음. - 차륜 및 기타 부속품 수입은 감소추세. 점유율도 0.4%에 불과	대만, 중국, 태국
가전	- 현행 무관세로 FTA 영향 없음 - 말레이시아로부터의 가전제품 수입은 TV와 청소기가 대부분임 - 청소기는 세계적인 수입확대 추세에 따라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입규모가 점차 증가	대만, 중국, 미국
산업용전자	- 현행 무관세로 FTA 영향 없음 -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실리콘 정류기 수입은 5위. 점유율은 4% 내외로 감소 추세 - FTA 발효에 따라 감소추세가 둔화될 전망이지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대만, 중국, 일본

□ 일본의 주요바이어 동향

- 농수산품을 제외하고 수입품목별로 일반특혜관세제도(GSP)가 적용되거나 현행 관세율이 0%로 일본의 주요 바이어 입장에서 FTA 체결에 따른 입장변화 없음.

바이어명 (기업명)	취급품목 (대한수입품목)	의견
미쓰비시 전기	TV, 튜너부착 액정모니터	- 수입폭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요인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중 - 현단계에서는 수입확대요인 없음
후지코시	기계, 베어링, 철강제품	- 철강은 말레이시아와 일본철강연맹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중. 일본의 철강제품 수출은 증가 예상 - 베어링, 절삭공구 판매회사가 말레이시 아에 소재. 현행 무관세로 FTA의 직접 적인 영향 없음
쿠보타	열교환기, 일반범용기기	- 협정발효에 따른 수입확대를 현단계에 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음 - 對말레이시아 수출 확대에 주력
야마젠 (전자부품 취급)	트랜스, 스위치, 반도체	- 최적조달을 염두에 두고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 조달 검토 중

□ 기타 주요산업 투자 확대에 미치는 영향

- 자동차 산업의 對말레이시아 투자 활성화

- 말레이시아의 국민차 보호육성정책에 따라 지금까지 외자가 제한되어왔지만 FTA 체결을 계기로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향후 말레이시아와 기타 아세안 국가간에 남아있는 관세장벽 문제가 해결될 때 일본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

- 닛산자동차가 조립공장을 말레이시아에 설립하고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세안 신흥시장으로 수출 확대를 모색 중
- 이스즈 자동차는 설비투자 확대를 통해 트럭 생산능력을 15만대에서 20만대로 끌어올릴 계획.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조달도 20~30% 저렴하게 수입 가능해짐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대폭 향상될 전망
- FTA 체결에 따라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가 보장되면 말레이시아에 자동차 산업 인재육성 및 기술협력 지원 예정

○ 석유 관련 플랜트 업계 수주 확대

- 말레이시아 정부의 규제완화로 투명성 확보, 수주 활성화가 예상
- 가와사키 중공업은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을 통한 압축설비 수주 확대 방침. 압축기 3기와 구동기, 제어장치 등 설비 생산, 조달, 시운전을 현지법인에서 주도

○ 철강제품의 對말레이시아 수출·투자확대에 유리하게 작용

- 10년에 걸쳐 관세가 완전 철폐됨에 따라 가격경쟁력 강화에 따른 단계적인 수출 확대 예상
- 말레이시아측은 FTA 교섭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신일본제철 등 용광로 제조업체 및 일본철강연맹이 파견한 사절단 등과의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상호간 이해를 높이는 윈윈관계 구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음.
- 양국간 수평분업 확대 등 전반적인 수출·투자 활성화 전망

3.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경쟁여건 변화

□ 우리나라 제품 경쟁력 변화 전망

- 말레이시아 산업구조상 수출을 위해서는 원재료 및 부품의 수입이 필수적이며 수출단가를 유지하기 위해 산업용 수입에 대한 관세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임
- 또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제품의 경우 가전제품, 반도체 등 많은 부분에서 이미 말레이시아내에 생산설비를 가지고 있어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다만 기존에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였던 철강(50%) 및 자동차 산업 및 일부 고급 가전제품(20-30%)의 관세가 크게 낮아질 전망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일본산 제품 가격 경쟁력 제고에 따른 한국산 제품의 수출의 타격이 예상됨

품목명	내 용	주요경쟁국
컴퓨터	- Dell(미국), 삼성(한국), BenQ(대만), NEC, Mitsubishi, Fujitsu and Mitsumi(일본) 등 주요 컴퓨터 업체들이 말레이시아에 생산설비를 갖추에 따라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산업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의 하나가 되고 있음 - 컴퓨터 관련 제품 및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	미국, 대만, 일본
반도체	- Intel, Motorola, Agilent, AMD, National Semiconductor, Fairchild, Hitachi, Fujitsu, Toshiba, Infineon 등 다국적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여 말레이시아는 semiconductor assembly, testing 및 packaging 부분에 있어 세계적 거점지역 중 하나	미국, 독일, 일본

	- 위의 다국적 기업들이 대부분 수입원자재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자유무역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동 FTA체결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일반기계	- 산업용기계 및 장비, 주요부품들을 주로 일본, 독일, 미국, 대만 및 싱가포르로부터 수입 - '05년 1분기 한국산 기계류 수입이 전년대비 8% 증가하는 등 상대적 가격 경쟁력을 이용, 고가의 선진국 제품 시장을 공략하여 호조 - FTA 발효시점부터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 한다는 산업부문 일반원칙이 적용될 경우, 한국산 기계류 제품의 상대적 가격이점이 희석되어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일본, 독일, 미국, 대만, 싱가포르
철강	- FTA 합의조건에 따라, 제조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 수입 관세가 면제되고 10년 이내에 모든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가 사라질 예정임 - 일본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제고되어 한국산 철강제품(ex. Posco Steel)의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	중국, 일본, 대만
자동차	- 양국은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 노력 착수 예정 - FTA 발효 시 현재 10% 관세인 CKD에 대한 관세가 곧 사라질 전망이며 CBU에 대한 관세도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사라질 예정임 - 일본차는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좋은 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 인하 및 철폐는 일본차 경쟁력에 보다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현지 진출한 한국차(현대, 기아)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시장논리 이외에도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정책이 가장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전망	말레이시아, 일본, 독일
자동차부품	- CKD이외 자동차부품 및 부분에 대한 관세가 2008년 0-5%, 2010년까지는 사라질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부품의 가격경쟁력	말레이시아, 일본

	확보로 상대적으로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경쟁력이 약화될 전망	
가전	- 가치분 소득증가 및 생활공간에의 관심증가로 가전산업이 성장세를 보임 - Sony, Sharp, Hitachi 등 주요 일본 가전 회사 경우 말련내 생산설비를 가지고 있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나 일본서 직수입되는 첨단 고급 제품의 경우 기존에 적용되던 관세율 (ex. TV: 25-30%, 냉장고: 30%, 세탁기: 25%)이하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전망이어서 최근 조금씩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LG, 삼성 등 한국산 제품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	일본, 미국, 네덜란드
산업용전자	- 상대적으로 일본제품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전망이지만 산업용 전자의 경우 기존 관세율이 크지 않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기대	일본, 미국

□ 말레이시아의 주요바이어 동향

기업명	취급품목 (대한수입품목)	의견
A1 Plus Sdn Bhd	컴퓨터 하드웨어 (삼성, LG)	일본에서 직수입되는 일부 Fujitsu 및 Toshiba 제품의 경우 관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로 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전망
DK Leather Corporation	가죽관련 제품	대부분 제봉기계들이 영국을 제외하고는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어 한국제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Autofilter Industries	자동차 PVC Dispenser 기계	한국산 기계를 이용하여 자동차 필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기계에 만족하고 있음. 관세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산 기계가 너무 고가이기에 수입선 변경은 고려하지 않음
Ornet Sdn Bhd	Fiber Optic Products - connector	한국산 제품에 만족하고 있으며 현재 제품의 관세는 10%로 일본산 제품의 관세가 0%가 되기전까지는 수입선 변경을 하지 않을 예정임

□ 말레이시아의 대일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FTA는 내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framework 및 핵심 사항이 확정되고 기타 세부내용 확정은 진행 중임

○ 투자부문에 관해서는 양국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일반적·선언적 내용만 있을 뿐 투자기업에 관한 구체적 혜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최근 일본기업의 대말레이시아 투자는 정체 및 감소

- 말레이시아 주재 JETRO가 말레이시아에 주재하는 자국기업
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투자대상국의 인건비 수준
을 투자 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

- 인근 동남아 국가 대비 인건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
황에서 이번 FTA 체결에 따른 일본의 대말레이시아 투자에
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Ⅲ. 시사점

- 일본은 최근 아시아지역 패권을 노리는 중국과의 경쟁차원에서 FTA 체결에 적극적
- 중-아세안 FTA가 '05.7월 발효된 이후, 아세안 지역 국가와의 개별적 FTA 추진은 물론 아세안과의 FTA 추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 FTA 협상에서도 취약 산업의 보호에 비중을 두는 관점에서 상대방 국가에 무엇을 팔 것인가 하는 공세적인 관점으로 기본전략을 변경

<일본의 국가별 FTA 추진현황>

구분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국가	싱가폴('02) 멕시코('04) 필리핀('06 발효예정) 태국('06 발효예정)	한국, 말레이시아	아세안, 인도네시아, 대만, 칠레, 캐나다 등

- 말레이시아는 중-아세안, 인도-아세안 FTA 등을 통해 중국과 인도의 아세안시장 진출 급증에 대한 보완책으로 한국, 일본 등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
- FTA 협상 시에도 대체로 자국시장 보호 경향이 강하며, FTA 협정에서 추진되는 관세인하 스케줄과는 별도로 각종 국내정책을 통한 시장개방 충격의 최소화 역점

- 금번 일본과의 FTA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시장개방에서 관세율 인하 스케줄과 더불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자국산 우선 구매정책 등)이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
- 일-말레이시아의 FTA는 관세인하 측면에서만 볼 때 일본의 시장개방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말레이시아의 대일 수입시장 개방 효과가 큰 비대칭 구조임.
- 이는 이미 일본이 말레이시아에 대해 GSP 등을 제공하면서 특혜관세를 적용해 왔기 때문이며, 이에 반해 말레이시아는 IT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 왔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입장에서는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에 일본산 부품소재의 안정적 공급과 최적의 글로벌 경영을 위한 자유로운 자원의 이동을 위한 포석으로 동 협정을 활용할 수 있음.
- 나아가 태국, 필리핀 등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FTA를 동시에 추진, 아세안 전체 시장에서의 우위확보 및 최적 생산기지 구축의 전략을 펴 나갈 것으로 전망
- 특히 지난 '05.7월 발효된 중-아세안 FTA를 활용, 장기적으로 일본-중국-아세안의 3각축을 연결하는 산업별 최적생산기지 구축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일본 전자산업계

- 아세안과 중국은 일본 전자업체의 주력 생산기지
 - 전체 TV의 53.9%, VTR/DVD의 86.0%, HDD의 97.1%를 아세안 및 중국에서 생산
- 생산거점별 특화전략
 - 규모의 경제를 위해 유사제품의 생산을 특정 국가로 통합
 - 전자부품 생산은 중국에 비해 아세안이 더 유리(숙련된 기술 인력 보유)
- 중국-아세안을 연결하는 통합 생산기지 조성
 -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 및 저렴한 임금 + 아세안의 기술력

○ 일본의 자동차 산업계

- 역내 조립생산 고도화
 - 태국 및 인니 내 자동차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전량 아세안 역내에서 조달
- 지역별 특정 품목 전문 기지화 (토요타 사례)

국가명	주요 생산부품
태 국	디젤엔진, 바디판넬
말레이시아	핸들, 와이퍼
필리핀	기어, 유니버설조인트
인도네시아	가솔린엔진, 도어락

- 중국 및 아세안 역내 생산제품의 세계 수출확대 전략
 - 아세안 역내 부품조달 및 완성차 생산을 통한 경쟁력 획득
 - 중국 내 생산설비 확대

- 우리나라는 주변 경쟁국들의 지역경제블록 형성 및 활용에 전략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
- FTA를 비롯한 지역경제블록이 강화됨에 따라 역외국에 대한 차별사례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추진 중인 한-아세안 FTA, 한-일 FTA 등도 이러한 관점에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
- 아울러 기 체결된 FTA와 향후 추진예정 FTA 간 상호 시너지 및 보완관계를 분석, 우리나라 산업과 수출에 실질적 이익이 나타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임.